

第63回 發明教室

5月 13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5月 13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63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大明産業 金成浩사장과 안양대안...○
- ...중학교 崔成洛주임교사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
- ...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權暎準 記〉...○

學生發明人의 產婆役

안양대안중 崔成洛 주임교사

68년 教育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오로지 學生들의 탐구 능력개발과 發明振興에 헌신해 온 안양대안중학교 崔成洛주임교사는 發明界에서는 學生發明人의 產婆役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동안 崔주임교사에 의해 發明人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學生이 1백여명을 헤아린다.

87년 發明의 날에 받은 大統領 표창을 비롯한 수많은 표창이 그의 發明教育 人生을 代辯하고 있다.

여주이포중학교 교사로 教育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안양공고·성남서고·김포종합고를 거쳐 지금의 안양대안중학교에 이르기까지 科學 및 發明班을 지도해온 崔주임교사는 發明·科學 理論家로서 國際特許研究院 등 관계기관의 講師로서도 名聲을 떨치고 있다.

그가 가는 학교는 어김없이 모범 科學·發明班이 誕生되고 있다. 안양대안중학교의 경우 84년에 設立된 新生學校인데도 부임한지 1년만에 전국모범 發明班을 育成, 지난 3월에 발간된 전국학생발명반 기본교재 『발명생활』 (글: 왕연중, 그림: 권용대)에 그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전국의 주요 發明·科學展에서 빠짐없이 입상자를 내는 崔주임교사가 이끄는 안양대안중학교 發明班이 조직된 것은 지난 87년 3월 10일. 35명으로 조직된 發明班은 그 희망학생이 늘어 올해는 65명의 대가족으로 늘었다.

『저희 학교 發明班이 이처럼 빛을 보게된 것은 저의 努力이라기 보다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



〈崔成洛 교사〉

지요.』 모범 發明班 육성은 지도교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는 崔주임교사의 설명.

2년간 發明班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관찰력은 크게 성장되어 이제 전교생 누구나 「나도 發明人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모습을 볼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崔주임교사는 『남은 교사생활도 發明班 육성에 반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락처는 0343~51~3834. <☎>